

광주학생독립운동 격문 공개 ‘눈길’

전남대 김재기 교수, 신한민보 게재 2점 발굴 상해·미국 등 글로벌 독립운동 네트워크 구축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1930년대 미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선전한 격문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16일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 게재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선전하는 격문 2점을 발굴, 공개했다.

격문의 내용은 1930년 1월 상해에서 활동하는 중국한인청년동맹(윤철(본명 오기만) 집행위원장, 건국훈장 애국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던 대한인국민회(백일규 총회장, 건국훈장 독립장)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연대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격문이 작성된 배경은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상해에 알려지자, 1930년 1월11일 상해 민족로에 위치한 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선생과 이동녕 선생, 흥사단원동지부 안창호 선생, 중국공산당한인지구부 연흥 선생 등 상해지역 한인독립운동 단체를 비롯해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등 500여명이 모여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상보고회와 지지 군중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일제의 잔학함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선전문을 보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전남대 김재기 교수가 93년전에 발간한 신한민보에서 원문을 찾은 것이다.

이 격문을 보낸 단체는 중국한인청년동맹단이며, 중국어로 작성된 것을 신한민보 주필을 역임한 동해수부(본명 흥언, 건국훈장 독립장)가 번역해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발굴한 격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남대 김재기 교수는 “중국 상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선전하는 수천통의 격문을 세계 곳곳에 보냈지만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었다”며 “이번에 유일하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했던 ‘신한민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감시를 피해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을 상해에 전했고 상해에서는 지지대회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보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쿠바에까지 알려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크게 기여했고, 나라 잃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독립운동이었지만 저평가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정부의 보존정책이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세계 주요 도시와 민족 대표들이 참여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세계적 차원의 독립운동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기자

북구, 제2회 추경예산안 구의회 제출

광주 북구는 1조 1천17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천138억원 증액한 규모로, 코로나19 재확산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억7천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억4천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4억3천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3억5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및 주차장 확충 등 현안사업으로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22억5천만원 ▲오치동 공영주차장 조성 38억원 ▲윤암 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7천만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원 등을 포함했다.

특히 주민담합회 등 구민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도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선 7기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안재명기자



광주전 양동공영주차장 출입통제.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린 16일 오전 서구양동 공영주차장에 집중호우를 대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김영근기자

姜시장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적극 협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 모든 행정·재정 지원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새병원 건립사업에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연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병원 행정동 2층 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주성필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함께 새병원 건립을 논의했다.

안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로 시도민들의 불편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등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절실하다”며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광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통과되기까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치료의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새병원 건립이 신속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비롯한 모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현재 전남대병원 및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부지에 1천300명상, 연면적 약 27만㎡, 총사업비 1조2천억원 규모로 병원을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상의 환자맞춤형 통합진료 ▲최첨단 헬스케어 융복합의료연구 ▲세계적 의료리더 양성이 가능한 세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오복기자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60 (심내운동 줄여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20	목포	05:51	10:54
목포	60-30		18:14	23:09
순천	70-30	여수	00:15	06:19
여수	70-30		12:38	18:26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18/목	(22/31)	(22/31)	(22/29)	(22/31)	(23/32)	(26/31)
19/금	(23/32)	(24/29)	(23/29)	(23/30)	(24/32)	(27/34)
20/토	(26/32)	(25/32)	(25/28)	(26/31)	(26/33)	(28/33)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제12회 5·18 언론상 수상작 4편 선정

제12회 5·18 언론상 수상 작품들이 선정됐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취재 보도 2편, 다큐멘터리 1편, 영상 1편 등 3개 부문 4편에 대해 5·18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취재 보도 부문에서는 광주MBC의 ‘황정과 언론’과 뉴스1 광주전남의 ‘5·18 정신회 손해배상 기해 시리즈’가 선정됐다.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공수부대원들의 새로운 증언을 끌어낸 ‘훈프로’, 영상 부문에서는 5·18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은 SBS의 ‘당신이 훔치는 사이 3 - 청주유골 430구의 진실’ 등이 수상작이 됐다.

공로상에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에서 10일간 현장을 취재했던 조성호 전 한국일보 기자가 이름을 올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로 활동 중인 조 전 기사는 1997년 5·18 당시 기록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18 진상을 숨기거나 날조 보도한 언론의 반성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다. /안재명기자

남구, 음식점 노후 주방·테이블 교체 지원

광주 남구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시설과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노후 주방시설 개선은 기름 사용이 잦은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후드와 덕트, 환풍기 교체 등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영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중식당 및 치킨을 취급하는 100㎡ 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거나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장기 운영하고 있는 업소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식 테이블 교체는 일반 음식점 10-13곳 가량을 선정해 1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희망 업소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남구청 보건위생과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다인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4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장이 서는 날** ●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송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시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